

자매도시인 일본 아오모리현과 제주도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라일보와 아오모리현의 동오일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기사교류를 진행한다.



일본 아오모리를 만나다(6) 대표 특산품

올해 기사교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양 지역의 우수한 상품과 지역을 지키는 기업을 소개한다. 올해 기사교류는 6-1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7차례 연재된다. 이번 시리즈의 다섯번째 주제는 '대표 특산품'이다.

제주의 색 녹여낸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 주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메이드인제주'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의 주요 농수산물 특산품으로 가공, 제조하고 있다.

신석중 대표

신석중(58) 대표는 "제주산 농수산물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면 판매처가 다각화돼 농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지역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며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메이드인제주는 2008년 감귤분말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중 무농약 감귤, 자생 백년초 열매, 제주산 방풍(防風) 등을 주 원료로 한 비타민C는 물론 녹차·보리 등 4종 쿠키, 감귤젤리, 감귤과즙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이번에 판매되는 '제주감귤 비타젤리'와 '삼다들 감귤과즙'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제작된 신상품이다.

두 제품 모두 제주의 특색을 제품에 녹여내기 위한 흔적이 눈에 띈다. 과즙은 밀박죽을 튀긴 후 조정(곡식을 엮기름으로 삭히고 조려 풀처럼 만든 것)을 바른 뒤 튀긴 쌀알을 입혀낸 한국의 전통과자로, 메이드인제주는 여기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감귤분말



'삼다들 감귤과즙'은 한국의 전통과자로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메이드인제주 비타민C 등 다양한 제품 생산 지난 5~10일 상해박람회서 제품 우수성 인정

을 넣어 제주의 요소를 첨가했다. 제주감귤 비타젤리 역시 제주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 모양으로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있다.

공장장이자 부사장을 맡고 있는 신성태(45)씨는 "제주에서 돌하르방 모양의 젤리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회사가 유일하다"며 "삼다들 감귤과즙 역시 제주산 감귤 100%의 감귤분말을 넣는다. 생산 즉시 날개 포장해 감귤의 맛과 향을 잘 살렸다. 때문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여행선물용으로도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메이드인제주는 지난 5~10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해당 박람회엔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식품 분야 전국 52개 업체(제주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메이드인제주'는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으로 내년엔 감귤, 녹차, 유채, 백년초, 한라봉 등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한라산모양의 한라산빵의 생산과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

채해원기자 seawon@halla.com

日 제일 사과산지 아오모리서 진공상태 착즙



아오렌은 국제 위생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은 제1·2제조공장에서 하루 250t의 주스를 착즙한다.

농촌공업농업협동조합 아오렌 밋페시보리 주스 산화 억제제 제철의 맛 풍부... 2010년 제법 특허

아오모리현의 최고봉인 이와키산의 꼭대기에 열게 눈이 쌓일 때 사과 주력품종인 '후지(ふじ)'의 수확은 절정기를 맞이한다.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사과의 당도가 높아져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살린 것이 아오모리현 농촌공업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아오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밋페시보리 주스이다.

밋페시보리 주스는 진공의 밀폐된 장치에서 사과를 갈아 짜내기 때문에 산화가 억제된다. 때문에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지 않아도 제철의 맛을 풍

부하게 즐길 수 있다. 아오렌은 2010년 해당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아라야 다카요시(新谷 孝義) 영업과장은 "일본 제일의 사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아오모리 현내에서도 이런 생산라인을 가진 시설은 없다"고 자신했다.

매년 사과 수확시기가 되면 아오렌에는 사과 품종별로 1t 사이즈의 거대한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다.

아오렌은 이를 원료로 27종류의 주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 중 10종이 밋페시보리주스인 밋페시보리이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아오모리를 대표하



가사이 미치유키 참석

는 역동적인 여름 축제인 '네부타'를 디자인한 네부타 패키지다. 기념 선물로도 알맞다. 일본에서 최초로 '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로 일본 농림규격(JAS) 인증을 받은 밋페시보리 '순노링고(旬の林檎)'도 주력 상품이다. '순노링고(旬の林檎)'는 갓 착즙한 주스를 그대로 담은 수량 한정판으로, 원료로 '후지(ふじ)'와 '오우린(王林)'만을 사용한다.

아오렌의 제품들은 해협(HACCP) 인증을 받은 제1제조공장과 제2제조공장에서 생산된다. 하루 250t의 사과를 착즙해 일본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22000 인증도 받아 대만과 홍콩, 태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13년 150t 규모였던 수출량은 3년 사이 300t 이상으로 늘었다. 아오렌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판매도 나설 예정이다.

고위 임원인 가사이 미치유키(葛西 亨之) 참석은 "사과 이외의 과일·야채의 가공도 가능하다"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아오모리현의 사과를 비롯한 맛있는 농산물을 국내외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타케야마 하루히코

수제 감귤과즙 & 제주 유일 돌하르방 젤리 '삼다들 감귤과즙' '제주감귤 비타젤리'

'삼다들 감귤과즙'은 한국산 밀과 한국산 쌀, 메이드인제주에서 생산하는 제주산 감귤분말을 사용한 제주식 한과이다.

삼다들 감귤과즙은 반죽을 만들고 튀기는 과정부터 쌀알을 튀겨 만든 과자를 입히는 과정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화학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바삭하게 튀겨진 밀과자의 고소함과 조정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감귤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진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빨에 잘 붙지 않는 점이 강점이다. 차와 곁

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 개별 날개 포장돼 한 상자에 10개 묶음씩 4봉지가 들어있다.

돌하르방 모양의 '제주감귤 비타젤리'는 제주감귤 분말을 주원료로 포장돼 뜬는 순간, 입에 넣는 순간마다 감귤의 상큼한 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부드럽고 쫄쫄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간식용으로, 맥주 안주용으로 좋다. 또한 주머니의 크기로 소포장 돼 휴대하기 간편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한 상자에 주머니 크기의 6개봉지가 들어 있다. 문의 758-0404. 채해원기자



지역 특색 담긴 주스 & 프리미엄 사과주스 '밋페시보리 네부타' '밋페시보리 순노링고'

일반적으로 캔주스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하고 향료와 물을 첨가하는 농축 환원타입으로 생산한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동일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밋페시보리 '순노링고'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다. 2종류의 사과만을 사용해 사과 맛이 가장 좋은 늦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짜낸 스트레이트 과즙을 그대로 캔에 담는다. 포도 알갱이를 그대로 통에 담아 상대적으로 짧은기간 숙성시키는 와인인 누보와 비슷한 셈이다. 이 때

에 첨가한 미묘하게 다른 맛의 차이까지 담았다.

아라야 다카요시 영업과장은 "순노링고는 과실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아오모리 사과의 매력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적극 추천했다.

여러 사과를 혼합해 밋페시보리에서 짜낸 착즙주스인 밋페시보리 네부타는 패키지에 지역의 역동성을 잘 담았다. 밋페시보리 순노링고 30개입 1박스 8만1300원, 밋페시보리 네부타 30개입 1박스 7만7600원.

하타케야마 하루히코

나를 찾아 떠나는 설레임!

M 모아투어

748 2002

야간·주말 TEL 010-2949-2002

해외 : www.moatour.kr [제주직항]

NAVER 제주모아투어 [해외여행]

일반여행업 제337호 / 기획영업 보증보험 2억원 가입업체

"2019년 제주직항 왕복 전세기 예약 접수중"

2019 전세기

오키나와 3일
출발일 3/29 **999,000 won**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별도

히로시마/아마구치 3일
출발일 4/27 **999,000 won**

다카마츠/고치/도쿠시마 3일
출발일 6/14 **999,000 won**

마츠야마/다카마쓰 3일
출발일 7/13 **999,000 won**

몽골/울란바토르 4박5일
출발일 6/19, 7/10, 8/7(단3회) **1,490,000 won**

(주)모아투어 제주시 노형동 1280-7(1층) / TEL. 064-748-2002

Yellow ID @모아투어 친구추가하세요

"여행객들은 시각과 미각의 유혹에 빠져들다"

제주 직항

말레이시아/말라카/젠팅 5일
출발일 12/20, 12/27, 1/3, 1/17, 1/31, 2/14, 2/28, 3/7, 3/14, 3/21, 3/28 **899,000 won** **799,000 won** (탑50불포함)

싱가폴/센토사/말레이시아 5일
출발일 12/20, 12/27, 1/3, 1/17, 1/31, 2/14, 2/28, 3/7, 3/14, 3/21, 3/28 **1,099,000 won** **999,000 won** (탑50불포함)

제주-쿠알라-젠팅-바루동굴-말라카-독립광장-자이나타운 / [싱가폴-센토사-주룽세공원-보타니카-조호바루]-제주

"몸과 마음을 녹이는 일본 온천 여행이라"

오사카/교토/나라 4일
출발일 1/10, 2/25 **999,000 won** (탑2인원불포함)
제주-오사카-오사카시-시모네-청수사-아리시마-교토-도모보리-제주

오사카/유니버설스튜디오 4일
출발일 1/10, 2/25 **1,039,000 won** (탑2인원불포함)
제주-오사카-유니버설스튜디오-나라-아리시마-제주

동경/하코네온천 4일
출발일 1/19, 2/16 **999,000 won** (탑2인원불포함)
제주-동경-하코네온천-아사쿠사-하리주쿠-신주쿠-제주

"연말연시 따뜻하고 가까운 나라로 새해여행"

호주/시드니 6일
출발일 2/14, 2/21 **1,698,000 won** (탑40불 불포함)
제주-쿠알라-시드니-포토스-파타-블루마운틴-본다이라-하버-브릿지-쿠알라-제주

방콕/파타야 5일
출발일 1/10, 1/24, 2/14, 2/21, 3/7, 3/21 **898,000 won** (탑40불 불포함)
제주-방콕-사왓-파타야-코끼리테랑-방콕-제주

상해/디즈니랜드 4일
출발일 1/3, 1/17, 1/24, 2/14, 2/21 **899,000 won** (탑100cm이상 **699,000 won**)
제주-상해-디즈니랜드-임시정부청사-남경로-황포강유람선-위문아점-제주

"중국 최고의 절경 무릉도원"

서안/병마용강 5일
출발일 12/27, 1/10, 1/24, 2/14, 2/28, 3/7, 3/21 **698,000 won** (탑3500원 불포함 탑530불포함)
제주-서안-진시황릉-병마용강-화창지대-대신-제주

상해/장가계/천문산 5일
출발일 12/21, 12/28, 1/4, 1/11, 1/18, 2/20, 2/22, 2/27 **999,000 won** (탑3500원 불포함 탑530불포함)
제주-상해-모봉호수-천자산-황룡동굴-전신맛사지-천문산-유리전도-제주

상해/계림/양삭 5일
출발일 12/21, 12/28, 1/4, 1/11, 1/18, 2/20, 2/22, 2/27 **999,000 won** (탑3500원 불포함 탑530불포함)
제주-상해-이강유람-용원이강소-오산케이빙-양삭-우물위멧목-절계산-제주

· 공통포함사항: 항공료, 택스, 유가환증료(상품가에 포함), 호텔, 차량료, 식대, 입장료, 기사, 가이드, 팀(단, 라스베이거스는 현지에서 지불합니다), 10명 이상 출발(15명 이상인 경우 자동), 단, 타사 패키지는 상항에서 달라짐 / VAT 별도
· 선택항목: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불포함: 개인여행비, 비자발급비(일부지역), 기사, 가이드, 팀(일부지역)
국민관광상품권 가맹점
농협 748-2002-2002-08 (주)모아투어